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입시 개혁과 입학사정관제 도입 계획

서종욱 | 홍익대학교 입학관리본부장

1. 대학 입시

대학이 설립 목적이나 교육 목표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여 사회에 배출하는 소명과 여망은, 적격의 인재를 발굴하고 선발하는 대학입시의 역할로 떠받쳐지고 대학입시의 결과로 평가된다. 대학입시는 대학 교육이 고교 과정의 연장에 머물던 시절에는 고교에서의 학업 성취도를 지원자 별로 단순 비교하여 입학적합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충분하였다. 대학 교육이 고교 교육과 사실상 동일한 지적 활동을 심화하는 과정이던 시절 대학입시는 표준화된 기준에 따라 정량적 평가를 통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대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입은 대학입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창의적 인재 양성이라는 시대적 요

구에 부응하기 위해 학생 개인의 적성과 잠재적 소질을 반영하는 대학입시 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¹⁾

대학입시는 단순히 대학이 원하는 인재를 선발하는 기능에서 나아가 대학에 맡겨진 사회 공익적 기능을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초·중등교육 현장에서 교육의 방향과 폭을 설정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학생들에게는 경쟁을 통한 자기실현이라는 사회적 동작 원리를 체험하도록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높은 교육열에 따른 대학입학 과열 경쟁이 사회적 부담으로까지 작용하는 현실에서 대학입시는 초·중·고는 물론 유치원 교육의 내용과 방법까지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학이 어떠한 전형요소를 이용하여 학생을 선발하느냐에 따라 중·고등학교의 교육이 달라진다.²⁾ 대학입시가 경쟁적 요소를 안고 있는 현실에서, 공감할 수 있는 룰에 따라 공정하게 관

리되는 전형 방법의 제공 역시 대학의 사회 공익적 책무며, 공감할 수 있는 룰의 핵심은 예측가능성이라 할 수 있다. 지원자가 적성이나 능력은 물론이고 대학이 원하는 요소들을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스스로 가늠할 수 있는 전형 요소를 활용하여야 하고, 또한 입학 전형의 결과가 대학에서의 성취도와 높은 상관도를 가져 이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미술대학 입시

대학입시 제도의 첫 번째 요건이 공정한 경쟁의 보장이라는 점에서 미술대학 입시는 첨예하게 상충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미술활동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인재의 선발은 일반 인지영역의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경우에 비하여 좀 더 주관적인 요소에 대한 평가를 수반한다. 그런데 공정한 입시관리에 대한 주문은 이러한 주관적 요소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기대한다. 이러한 갈등적 요소는 대학입학 지원자 수가 증가하고 고등교육 수요가 보편화함에 따라 증대하였으며, 수험생과 평가자를 분리하여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전형 방법이 미술대학 입학전형 관리의 필요조건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형식적 공정성은 실기고사라는 편리한 수단에 의하여 잘 지켜졌으며, 미술 작가에 대한 평가가 늘 그가 완성한 미술 작품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상의 습성과 맞아떨어져 별다른 비판 없이 일반인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었다.

초·중등 교육과정의 방향과 폭을 제시하는 역할 수행의 측면에서 미술대학 입시는 그 어느 때보다 큰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지식기반사회로 들어섬에 따라 예술적 감수성과 미적 감각이 부가 가치 생산의 핵심적 요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디자인이 경쟁력이라는 구호는

일반인에게도 와 닿는 생생한 호소력과 설득력을 갖게 되었고, 특히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디자인 감각은 미술 이외의 분야에서도 필수 덕목이 되었다. 미술 분야에서는 새로운 소재와 기법, 미디어 등의 출현으로 다양한 장르가 계속 탄생을 알리고 있다. 가난이 극복된 이후 탄생하여 성인이 된 첫 세대를 맞이한 우리 사회의 경우 생활수준의 질적 향상은 사회 전 분야에서 높은 예술적 감수성을 주문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에게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기대하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높은 수준의 소양을 갖추도록 요구한다. 미술대학 입시는 초·중·고에서의 미술교육이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방향타가 되어주고 그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3. 실기고사를 기반으로 하는 미술대학 입시의 한계

입학 전형 관리의 측면에서 보면 실기고사는 다른 어떤 전형 방법에 비해서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채점 또한 공정성과 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실기고사는 이러한 관리의 편리성이나 뛰어난 형식적 공정성이라는 매력에도 불구하고 대학입시가 갖추어야 하는 중요한 요건을 심각하게 결여하고 있다. 실기고사는 평가의 변별력을 상실했고, 예측가능성이 극히 낮으며, 미술 공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역기능을 안고 있다.

미술 실기고사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일종의 표준화된 평가 수단과 기준을 갖추게 된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문제를 완성하도록 요구한 후, 완성된 작품을 통하여 수험생의 미술에 대한 능력을 평가한다. 이



러한 실기고사의 특징 때문에 평가 영역이 일부 제한된 요소에 대한 표현력으로 국한되는 것이 불가피하고 작품의 완성도가 평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실기고사 채점 결과의 통계적 특성이 이를 잘 반영하고 있는데, 고득점자 군이 명확하게 갈리고 고득점자 점수 간 통계학적 차별성이 극히 낮은 특성을 띤다. 작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기능을 연마하고 적은 노력으로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소위 입시미술 기법을 익힌 학생들이 고득점자 군을 형성하나, 이들 작품 간에는 차별성이 없어 점수의 산포도는 크고 변별력이 없는 특징을 보이는 것이다. 그야말로 단편적인 기능만이 강조된 물개성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⁴⁾

대학입시의 중요한 요건인 예측가능성 측면에서도 미술 실기고사는 그 기능을 상실했다. 본교의 자체연구 결과 실기고사 성적이 미대입시의 당락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의 학업성취도와외의 상관관계수가 다른 전형요소에 비하여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⁵⁾ 실제 미술대학 교과과정이 실기 비중이 높도록 구성된 점을 고려하면 실기고사의 낮은 예측타당도는 더욱 문제가 된다. 다른 한편으로 수험생의 입장에서 자신이 실기고사에서 얻을 수 있는 점수를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수험생들이 평소 동일한 기준으로 서로를 평가해볼 기회가 없는 관계로 자신의 위치를 가늠해줄 것으로 기대하는 사교육 기관에 더욱 의지하게 된다. 사실 모의 실기고사와 같은 방법이 제공된다 하여도 앞에서 언급한 대로 변별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변별력과 예측가능성이 상실된 실기고사의 원인과 결과는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 심화임은 언급한 바와 같다. 사교육 기관에서의 암기와 숙련과정을 거쳐 재생산된 작품들에 의하여 압도되는 실기고사는 그 기능을 다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실기고사에 대비하여 기계적으로 훈련되지 않은 지원자는 평가 선상에도 오르지 못하고, 고도로 숙달된 지원자라 하더라도 작품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차별적으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이 미술 실기고사의 현실적 한계이다. 잠재력과 열정을 갖춘 인재들을 선발하는 기능은 고사하고 숙련도 높은 기능인 선발에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대학입시의 또 다른 기능인 초·중등 과정에서 교육의 방향과 폭을 제시하는 역할은 실기고사를 기반으로 하는 미술대학 입시에 의해서 미술교육이 실종되는 역설적 현실을 만들어내어 이미 무색해진지 오래다. 실기고사에서 고득점을 얻어내기 위한 준비에 있어서 사교육이 공교육에 대하여 절대적 우위를 점하는 사태를 초래하여 미술교육의 가장 적극적인 수요층이라 할 수 있는 미술대학 지망자가 학교로부터 이탈하는 현실을 초래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일반 학생의 미술 교과에 대한 외면을 부채질하여 마침내 미술교육을 고사 지경에 이르도록 하는 사태를 초래했다.⁶⁾

4. 미술대학 입시에 있어서 실기고사 이외의 전형요소

미술대학 입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형요소는 포트폴리오, 학생부, 비교과 활동보고서, 심층면접,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이 있다. 미국 등 선진 외국의 경우 포트폴리오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⁷⁾,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⁸⁾ 심층면접의 경우 인지적 영역뿐만 아니라 정의적 영역까지 측정할 수 있는 적합한 방법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으며⁹⁾, 대학입시 과열경쟁을 가장 적게 유발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²⁾.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미술 교과가 극도

로 위축되어 있어 비교과 활동에 대한 고교에서의 평가 결과를 별도로 접수하여 전형 요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지식정보화사회의 대학입학 전형은 대학에서의 수학 능력과 사회에서의 자기 성취 능력을 갖춘 인재의 발굴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성취를 바탕으로 하는 적합도에 대한 평가에 더하여 적성과 열정이 요구되는 이유다. 대학에서나 사회에서 끝없이 자기 발전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 미술에 대한 적성과 열정이 필수적인데, 이러한 요소들은 장기적 관찰을 통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미술 교과 및 비교과 활동에 대한 참여도와 성취도는 학생의 미술에 대한 적성과 열의를 파악하는 적합한 수단이다. 미술교사가 오랜 기간 학생의 발달 과정을 관찰하고 미술에 대한 흥미도를 확인하는 데 포트폴리오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는 최근에서야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 관리를 교육하기 시작한 실정이나 이미 미술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미술 전공자에게는 창의성과 상상력은 물론 자신의 아이디어를 완성할 수 있는 기획력, 추진력, 언어 구사 능력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다양한 소양을 복합적으로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에 적합한 전형요소로서 심층면접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학생들의 창의성이나 심미성 등과 같은 능력 역시 심층면접을 통한 관찰이 효과적이다. 현실적으로 작품을 통한 자기표현 능력에 비하여 상상력이나 창의적 감성이 더 빨리 성장하는 고등학교 과정의 학생들에게 있어 면접을 통한 평가는 특별히 유용하다. 미술적 체험이나 비평 능력 등을 언어적 수단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심층면접은 특히 효과적인

전형 요소가 될 수 있다.

학생들의 미술 실기 능력과 이론에 관한 학업성취도는 표준화된 시험을 통한 평가가 제한적으로 가능하며, 이는 학생부 상의 미술 교과 성적이나 평가 내용이 전형요소로 활용될 수 있는 배경이다. 미술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미적 경험의 넓이 등은 토론 수업 등을 통해서 평가할 수 있으며, 교과 과정이나 비교과 활동 등을 통한 교사의 다면적이고 지속적인 평가는 시험을 통한 평가의 신뢰성을 높여줄 것이다. 한편, 교과 성취도에 대한 평가 결과가 제한적으로 서술되는 학생부의 미진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교사의 평가 의견을 별도의 양식을 통하여 접수할 계획이다. 물론 평가 의견은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에만 인정할 예정인데, 이는 평가의 일관성과 적정성의 객관적 관리를 위한 필요 때문이다.

5. 미술대학 전형과 입학사정관제 도입 계획

앞에서 나열한 다양한 전형 요소를 활용한 다면적 평가는 고도로 숙달된 전문가에 의해서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입학사정관제가 그 해답이다. 입학사정관제의 핵심은 수험생에 대하여 장기적 관찰을 통하여 파악해야 하는 특성은 고등학교 미술 교사의 평가를 존중하는 기반 위에서 서류 평가와 현장 방문, 그리고 면접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수험생과의 대면 평가를 통하여 미술적 소양과 적성 등을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학생부와 수능 성적 등을 통하여 일반 교과에 대한 학업능력을 평가하고 입학사정관제 정착 과정에서의 충격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입학사정관은 고등학교 현장에서의 미술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

고 입학 전형 결과에 대한 분석과 추적연구 등을 통하여 전형 요소별 반영비율이나 평가 기준 등을 설정한다.

본교가 진행하고자 하는 미술대학 입학사정관 전형은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핵심적으로 서류 전형과 심층면접으로 이루어진다. 서류전형의 경우 그림 2와 같이 지원자가 제출한 미술활동보고서 상의 미술 관련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을 취합하여 정리·분류하는 DB(Data Base)화 작업으로 시작한다. 사전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DB 상의 활동들과 통합하여 분류한 후, 평가를 위한 정량화 지표를 설정한다. 이렇게 설정한 지표를 기반으로 1차적인 전산 전형을 수행하여 각각의 활동에 대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전산 전형이 완료된 상태에서 입학사정관이 개별적 지원자에 대한 서류 전형을 수행하는 데, 지원자의 주요 인적 사항을 익명화한 출력 자료를 이용하여 전산 전형 결과의 타당성을 점검한 후 보정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각 지원자에 대하여 복수의 입학사정관이 평가하고 점수의 가감 내용에 일정 이상의 편차가 발생한 사례에 대하여는 별도의 재심의 과정을 거친다. 한편, 서류 전형 과정에서 지원자에게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별도로 정리하여 면접을 통하여 확인한다. 입학사정관제가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정착된 이후에는 1차 전산 전형 과정은 불필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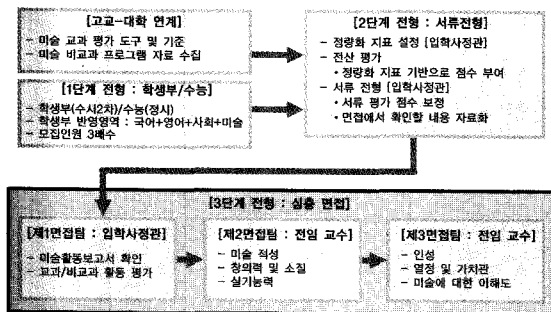


그림 1. 미술대학 입학사정관제 전형 진행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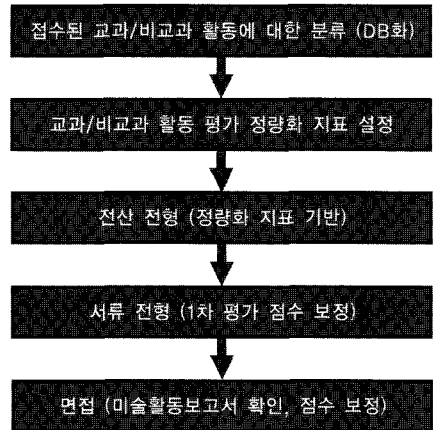


그림 2. 서류심사 절차

서류전형에 이어 심층면접을 통하여 지원자의 교과 및 비교과 영역 미술활동에 대한 추가적 평가가 이루어진다. 심층면접은 총 3단계로 진행되는 다면평가 과정으로서, 1단계는 서류전형을 진행한 입학사정관에 의하여 직접 이루어지는 미술활동 참여성과에 대한 평가이고, 2단계와 3단계는 미술대학 전임 교수들에 의한 전공 적성에 대한 평가가 주된 목적이다. 심층면접의 1단계는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미술활동에 대한 서류 평가를 보완하기 위한 면접으로서, 서류에 기재된 내용 중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거나 미술활동 각 항목별 서류 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보정하기 위한 질문이 주어질 수 있다. 수험생의 입장에서 자신의 미술활동이나 미적 체험 등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평가 받을 기회가 될 것이다. 보정 결과는 별도로 집계되어 해당 교사 및 학교로부터의 평가 자료에 대한 신뢰성 보정계수로 활용될 것이다.

심층면접 2단계와 3단계는 미술대학 전임교수들에 의하여 진행되는 전공 적성 평가 과정으로서 미술에 대한 적성과 열정을 확인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창의력과 소질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2단계 면접 과정에서

는 지원자가 갖추고 있는 실기 능력의 수준을 확인하는 간접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인성과 열정 등을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3단계 면접에서는 미술에 대한 이해도나 지식 등에 대한 평가가 병행될 것이다. 물론 2단계와 3단계의 전공 적성 면접도 입학사정관이 연구를 통하여 사전적으로 설정한 평가 문항과 기준을 제시하고 면접 위원에게는 이를 충실히 따르도록 요구하며, 입학사정관은 면접 자리에 배석하여 면접진행을 감독하고 관찰한다. 이는 면접의 형평성과 객관성의 확보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향후 면접 전형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면접 시간과 면접위원 수는 지원자 수나 입시일정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매 단계 3인의 위원에 의하여 10분간 진행되는 면접이 가장 적절한 선택으로 여겨진다.

6. 결론 및 향후 계획

그동안 미술대학 입학 전형의 중요한 요소로 활용된 실기고사는 미술 공교육 피폐화와 사교육 의존도 심화의 주범으로 지목되어왔다. 학교 교실을 떠나 학원에서 실기고사를 대비한 입시미술용 요령을 암기하고 기능을 숙련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미술적 감수성과 창의성을 소진하고 있다. 실기고사는 이들이 양산한 천편일률적인 작품에 의하여 변별력을 상실하였고, 입시미술에 물들지 않은 창의적이고 개성을 갖춘 학생들의 미대진입을 막는 장벽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저비용의 편의성과 대안 부재라는 현실은 실기고사를 미대입시의 축으로 유지하였다. 하지만,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부합하는 새로운 미대입시 전형의 도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잠재력과 열정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다면적 평가를 통한 선발

방식으로 대학입시를 전환해야 한다. 아울러 고사 위기의 미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고등학교에서의 평가 결과를 존중하는 기반에서 학생 선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입학 전형을 위한 세밀하고 광범위한 연구·조사·분석이 전제되어야 하며,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도입이 불가피한 이유이다. 입학사정관제의 도입 단계에서는 엄격한 공정성에 대한 요구를 고려하여 정량적 객관화를 토대로 하는 전통적 방법과 절충하되 정착해감에 따라 점수화보다는 정성 평가 중심의 선진형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

참 고 문 헌

- 1) 강창동, "한국 대학입시제도의 사회사적 변천과 특징에 관한 연구," 교육문제연구, 28, pp. 83-113, 2007.
- 2) 지은림, "우리나라 대학입시 과열경쟁 현상에 대한 인식 조사," 교육평가연구, 17(2), pp. 147-164, 2004.
- 3) 정진곤 외 7명, "2008년 이후 대학입학정책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연구보고서), 2007.
- 4) 김용철, "미술대학 입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2회 한국지성의 표상전 기념 심포지엄, pp. 33-43, 1994.
- 5) 백남진, "미술대학 입학 전형요소의 예측타당도 검증," 홍익대학교(연구보고서), 2009.
- 6) 김형숙, "한국의 미술대학 입시제도 현황과 분석," 조형교육, 21, 2003.
- 7) 이주연, "외국에서의 미술과 수행평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연구자료), 1999.
- 8) C. M. Dorn and F. R. Saboi, "The Effectiveness and Use of Digital Portfolios for the Assessment of Art Performances in Selected Secondary Schools," Studies in Art Education, 47(4), pp. 344-362, 2006.
- 9) F. Blaikie, D. Schonau, and J. Steers, "Student's Gendered Experiences of High School Portfolio Art Assessment in Canada, The Netherlands, and England," Studies in Art Education, 44(4), pp. 335-349, 2003.



10) 성태재 외 4명, “심층면접과 고등학교 교육 상관관계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연구보고서), 2006.

필 / 자 / 소 / 개

서종욱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에서 학사,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에서 석사를 취득하고, 미국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에서 반도체전자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흥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잠재력과 열정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다면적 평가를 통한
선발 방식으로 대학입시를 전환해야 한다.
아울러 고사 위기의 미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고등학교에서의 평가 결과를 존중하는
기반에서 학생 선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